



오록도 행복 칼럼

정은혜 호스피스 간호사
(부산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남구담당)

“돌보던 분이 돌아가시면 우울하지 않아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어렵다. 이별이 슬프지 않을 리 없다. 그러나 만남부터 이별을 준비했고 인생회고를 통해 알게 된 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나의 몫이라, 그러면서 슬픔이 치유된다. 그래서 슬프지만 우울하지는 않다.

호스피스는 ‘영적 돌봄’의 한 방법이다. 통증, 식욕부진, 피로, 수면장애 등 여러 증상들이 조절되고 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대부분 허무하거나 공허해한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느라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니, 괴로움이 줄어든 그때 마음 돌봄을 시작한다. ‘심심한데, 이야기나 좀 하다가 가라’는 요청은 정서적 혹은 영적 접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죽음도 삶의 일부, 인생회고가 주는 깨달음

“그 때는 무서울 게 없었지.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하고 그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 날이라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려 갔지. 월급날이면 밥상에 반찬부터 달랐어. 그때는 뭘 먹어도 맛있었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따랐지. 그 아이들도 늙고 나도 늙고, 이제는 집에 들어와도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던 자녀들이 그림자는 뜻이네요. 전화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바쁠 텐데, 계속 전화하면 싫잖아요. 안해, 전화가 온다면 받을까...”

“전화 오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참 효자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착했어...”

갑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랑이 시작된다. 전화가 드문 그 아들 변호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들의 추억이야기가 시작되면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얼굴도

상기되면서 말씀이 빨라진다. 어떤 아들인지 기억하고, 그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의 적적함을 견뎌만해지기도 한다.

‘아버지’라는 목소리가 듣고 싶은 그 분을 위로할 능력이 나에게겐 없다. 요즘 외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듣는다. 위로해 줄 누군가가 저절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자고 한다.

“오늘 문득 너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 그때 칭찬 못해 줬지만, 아버지는 내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밥 잘 챙겨먹고 건강 조심하면서 일해.”

함께 연습하지만 실제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분은 드물다. 그래도 말하는 그 순간은 행복해지고, 또 과거의 기쁨을 되뇌는 훈련도 하게 된다. 대화를 통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젊은 시절이야기, 열정적으로 일했던 직업 이야기,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본 이야기,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행복했던 추억, 지금 생각해도 괴로운 그 사건, 그 사람 이야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아프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찾아간다. 상처가 된 이야기는 반복하지만, 회수를 거듭할수록 분노나 슬픔의 강도는 여여진다.

우리는 대화를 하며 몸이 아파도 정신이나 영혼은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편한 지금 어떻게 지내는 것이 나 다운 것인지로 주제가 넘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며 스스로 정리할 능력이 있다. 방문 회수가 늘고, 대화가 누적되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가 드러난다. 그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며 그 분이 현재 불편함에 적응하도록 미래의 불편함에 대비하도록 돕고 그 과정을 기억한다.

‘인생회고’라는 방법으로 내 영혼을 미리

돌볼 것을 권한다. 말로 회고해도 좋고, 글로 쓰는 것도 좋다.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 추억을 나누는 것도 인생회고의 한 갈래이다.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준다.

한해가 저무는 이즈음 한해를 돌아보기 좋은 계절이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삶이 기억될 것이다. 호스피스의 선구자, 죽음의 정신과 의사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중한 오늘 나답게, 그래서 복되게 지내시길 희망한다.



오해야항 봉수대를 찾아서

팍태옥의 바람고개 이야기

오록도를 품고 있는 승두말 반도지역에 오해야항(吾海也項)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봉수대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성종 12년(1481년) 경이었고 폐지된 것은 영조 16년(1747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치 장소는 지금의 사하구 승학산 혹은 구덕산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해야항 목마장은 사하구 일대에서 동구 범일동에 이르는 내성·중성·외성의 3중 구조인 팍역 목마장이었다. 자연 오해야항 봉수대가 내성인 사하구 쪽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과는 달리 〈해동여지도(1767~1795)〉, 〈청구도(1834)〉, 〈영남읍지 2권(1894)〉 등에는 오해야항 봉수대가 용당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지도를 제작한 분들은 동시대 지식인들이었으니 이 봉수대 위치를 잘못 표기했을 리 없다. 그렇다면 남구 최전방 해안 어디쯤에 이 봉수대를 설치했을까. 용호동 장자산으로 가보자. 이곳에 설치되었다고 전해지는 봉수대의 규모로 추정해 보면 동래부사 혹은 좌수사의 재량에 의하여 설치한 권설봉수 성격의 연안봉수로서 연대(煙臺) 같아 보이고, 신선대 뒷산인 신선산(봉오리산)의 돌탑은 요망대, 즉 바다를 관찰하는 망대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 외에는 봉수대를 설치했을 만한 장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 오해야항 봉수대는 처음 오해야항 목마장이 있는 지역 어딘가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

이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남구 용당 일대로 이전하였을 것이다.

이는 〈청구도〉를 증보·수정하여 약 27년 뒤에 제작한 〈대동여지도(1861)〉에도 같은 표기를 하고 있다. 이로 보면 오해야항 봉수대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를 내세워야 할 것 같다. 첫째,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좌수영)이 감만포에 설치되었다가 울산 개운포로 이전하였고, 임진왜란 직전 지금의 해운포(수영)로, 인조 13년(1635) 다시 감만포로, 효종 3년(1652) 다시 해운포로, 1895년 구군제 폐지와 함께 역사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어느 지역으로 이전했든 좌수영은 좌수영이었다. 바깥 말하면 사하구 지역의 오해야항 봉수대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군사적 목적에 의하여 사하구에서 남구 해안으로 옮겼다면 그 명칭 역시 같은 명칭을 썼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외양간(목마장) 가는 길목이라는 뜻을 가진 ‘오해야항’에 주목해 보면 사하구 지역의 오해야항 목마장이나 남구 지역의 석포 목마장이나, 목마장이 있는 지역에 설치한 봉수 기능이 있는 모든 봉수대를 ‘오해야항 봉수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세 번째, 고지도 표기에 나타난 오해야항 봉수대를 연안봉수인 연대로 봐야 해안으로부터 10리(4km)~20리(8km)의 후방에 배설한 황령산 봉수대 위치가 규정된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 어느 쪽이든 오해야항 봉수대는 역사만 알고 있을 뿐이다.

소설가·향토사연구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제23회 오록도평화축제 시민백일장 장원 수상작

낙엽의 추억

김정민(용소초5-1)

낙엽을 보면 처음 어린이집으로 갔던 길이 생각난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어린이집으로 보냈다.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따라갔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 길에 여러 가지 낙엽이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 망가진 것도 있었고, 셋노란 은행잎도 있었다.

낙엽이 나 같았다. 나처럼 불쌍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울었나 부끄럽기만 하다. 아침에 엄마와 함께 걷는 낙엽길은 행복했지만 두려웠다. 가을 내 나는 아침마다 울었다. 우는 나를 두고 출근하는 엄마도 같이 울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낙엽으로 미술 놀이를 했다. 낙엽에 물감을 묻혀 찍기놀이를 했다. 파란 물감으로 찍어내고, 파란 물로도 찍어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몸이 낙엽처럼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나를 두고, 또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주녁에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시면 너무 좋았다. 할머니 집으로 가면서 보는 낙엽은 예쁜

고 귀엽게만 보였다. 낙엽들이 할머니와 함께 가는 나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을이 되면 가족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엄마와 건넌 낙엽길도, 할머니와 건넌 낙엽길도 생각한다. 국화꽃 축제가 열리는 평화공원에 할머니와 소풍 오고 싶다. 노랑국화꽃을 좋아하는 할머니와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싶다. 분명 할머니와 엄마가 만나면 내가 울보였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이 떠나가라 울었다고 놀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이런 것도 다 추억이니까. 놀림을 당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오록도평화축제를 본다

배태영(대연5동)

지난주와는 너무 대조적인 화창한 가을날, 평화공원 국화축제를 보고자 여섯 살배기 손녀들과 평화공원을 찾았다.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흥겨운 풍물가락과 평소답지 않은 엄청 많은 차량과 사람들에 놀라고 들뜬 맘으로 들어왔다. 마침 오늘은 남구의 각종 자치단체가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부산에서 남구문인협회의 시민백일장을 열고 있었다. 글제가 ‘평화’라고 했다.

‘평화’, 부드럽게 들리고 포근한 뉘앙스를 주는 말이다. 평은

하고 화목하다는 뜻을 지닌...

이 시점 모두가 뜨겁고 흥겨운 가락에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한몸이 되어 응원하고 남남끼리 혈육보다 더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축제마당.

화목하다. 꽃매장 너머에는 70여 년 전 누란에 빠진 이 나라를 지킴에 도움을, 기꺼이 한 몸 바쳐 도움을 주신 유엔평화군 병력들이 잠들어 계신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평온을 누리고 있다.

‘평화축제’ 정말 어울리는 장소에 어울리는 축제명이다. 무대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하는 동안 머시매, 팔매, 꼬맹이들도 흥겨운 듯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에 맞춰 무대 아래서 함께 춤을 춘다. 그리고 모두가 웃음진 밝은 표정이다. 이런 의도적인 연출로는 절대 불가능한 자연적인 모습, 표현이다. 그래, 이것이 바로 평온하고 화목한 바로 평화의 참모습이 아닌가.

나는 피난시절 용두산공원 이순신장군 동상 밑에서 태어나 7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부산을 떠난 적이 없다. 근대 이 부산, 매스컴을 통해 어느 지방을 둘러봐도 이런 곳이 없다. 바다가 좋고 산이 좋고 곳곳마다 정이 넘치고 흥이 넘치고 축제가 많다. 근대 더 중요한 건 이런 축제, 아니면 유사한 행사 등에 모두가 내 일처럼 호흡하고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부산의 기질은 지난 독재시절 ‘부마항쟁’의 시점이 되었고, ‘부산갈매기’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어쩌다 불일이 있어 다른지방을 다녀올라치면 그 흔한 어묵 파는 것이 없더라. 돼지국밥이 없더라. 밀면 파는 곳이 안 보이더라. 이 좋은 먹거리 풍부하고 넉넉하고

흥겨움 넘치는 부산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 중에도 우리 남구.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볼거리, 가볼거리, 해 볼거리, 풍부하고 사통팔달 탁 트이고 동해바다가 맞닿은 곳. 굳이 축제가 아니라도 언제라도 부담없이 둘러볼

수 있는 이곳 평화공원. 이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평화가 아닌가. 언제나 그랬지만 나는 오늘도 손녀들과 어우러져 평화를 만끽하고 간다. 이러한 평화가 내 손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하기를 맘 속 깊이 갈망하면서...

낙엽	당신인가 봄니다
엄주혁(대남초3-1)	고달픈 상념 속에 나를 잊고 멈춘 시간 속으로 떠나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네	
낙엽이 나비처럼 찰랑거리며 땅에 앉는다 낙엽이 잠자리처럼 파라락거리며 내려온다 땅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낙엽 소리 내어 바스락 바스락 사 박사박 노래를 부른다	무려진 일상 지친 어깨 너머로 그림자처럼 늙는 삶의 무게 복잡한 생각 속에 마음은 길을 잃고 저 들녘 끝을 돌아 당신께 갑 니다
빨간 옷 노란 옷 예쁜 옷 입고 낙엽들 모여 축제를 여네	슬픔이 머무는 햇살 언저리 아름이 떠도는 구름 한 자락
평화	
김양기(남구)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위안과 휴식이 되어, 영원불멸의 의지 속에 자생의 빛으로 나만의 자유가 됩니다
가을빛에 바람으로 왔나요 저 푸른 하늘이	

산따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9. 1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정소
대연동	약천산악회	12.18.(수)	덕유산 '눈 구경'
	남구자유산악회	12.1.(일)	고흥 팔영산
	하나로산악회	12.4.(수)	화순 운주사쌍봉사
용호동	용산산악회	12.8.(일)	보성 초암산
	청산산악회	12.1.(일)	산청 툰알안
	환경산악회	12.1.(일)	통영 연대도만지도
	여남산악회	12.8.(일)	소백산
	용호산악회	12.22.(일)	진안 구룡산
용당동	용마산악회	12.8.(일)	영동 율령봉
감만동	오솔길산악회	12.15.(일)	상천포 신수도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12.8.(일)	청송 주왕산
	문산산악회	12.8.(일)	소금산 출렁다리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시

시월

진영태

담쟁이는 물 한방울 없는 벽을
끝없이 기어 오른다
시월애 마지막 잎을
떨어줄 때까지

떡갈나무도 붉게 물든 잎을
계속 밀어내고
하얀여름이 수줍은지
헤죽헤죽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산사 앞 오색 코스모스는
지금이 봄인 듯
시월애 환린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또 그런
사랑인 거인가



우리 효도노인대학

남구에는 효도노인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생의 연륜이 빛을 발하는 노인들, 삶에 철학이 녹아있고 지혜와 덕이 넘치는 어른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말년을 장식하는 곳. 우리대학 학장님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만능 탤런트입니다.

학생들에게 훈시도 잘하시지만 노래와 춤도 잘 하시지요.

인성의 폭이 넓어 학생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위로도 받고 즐거움도 찾습니다.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시면 학생들은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목청껏 노래하고 어깨춤도 추면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노년이기에 때로는 마치 가을 별판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어 알알이 열릴듯이 자녀를 올곧게 가꾸어서 저 이룰 갈 길로 보내놓고 허전함과 외로움도 많았겠지만 삶의 도리를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위안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을이 왔으니 비록 덜 풍요롭더라도 명예도 욕심도 내려놓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꼭 붙들고 석양의 노을처럼 아름답고 곱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존경받고 대우받는 어른으로 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남(용당동)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